



편집인 칼럼

병해충 방제와 예찰기능 강화

■ 최 운 홍 /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국제적인 통계에 의하면 병해충 및 잡초로 인한 작물생산의 손실이 평균 3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정상적으로 작물을 보호관리 했을 때의 경우이고 만약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특히 과채류의 경우는 감수량이 80~90%에 이른다고 하니 병해충 및 잡초의 피해 위력은 가히 짐작할만 합니다.

옛날부터 농사는 병해충·잡초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병리 곤충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06년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 설립되면서부터이고 실질적으로는 1930년 조선총독부 중앙농사시험장에 병리곤충부가 생기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사업도 1940년 전라북도 농사시험장에서 최초로 시도되었고 1942년에 가서야 전국 규모의 조직이 갖추어졌습니다. 그 당시 전라북도 예찰사업의 조직을 보면 도 예찰반의 반장은 시험장장이 되고 산업기술(産業技術)을 주임으로 하여 도 농무과, 시험장 등에서 9명을 임원으로 하였으며 예찰반원은 농사계 전원과 수리조합, 읍면, 학교직원들을 반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예찰대상 병해충은 주곡인 벼농사를 중심으로 5월 1일~9월 30일 사이에 도 열병, 줄무늬잎마름병, 이화명나방, 멸구 등을 예찰조사 하였습니다.

그후 1958년부터는 도원의 시험포장에 이어 군단위에서도 농가포장을 임차하여 고정 예찰포장을 만들고 전담조사원을 배치하여 정밀예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적이고 본격적인 예찰산업을 추진한 것은 아마도 1977년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국에 작물보호과가 신설되고 전국 군단위에 1개소씩 150개의 기본 예찰 조직망이 가동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과 방제지도는 그동안 벼농사 단수(單收)제고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중 중요한 현장지도의 핵심역할을 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작물보호분야 직원도 '77~'96년까지는 10~12명 '98~'02년까지는 5명 '03년이후 지도직의 지방화 이후에는 2~3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특히 지방화 이후 병해충 담당인력의 감소는 눈에 띄게 두드러져 예찰, 방제업무 기능의 약화를 초래했고 이마저도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농업재해 등 과중한 업무로 사전예찰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병해충 업무 담당자의 66.7%가 3년미만의 근무경력 뿐이 안돼 전문요원으로서 병해충 감별능력에 커다란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농업을 중시한다해도 예찰기능의 본질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찰은 병해충 방제의 기본으로 예찰이 늦어지거나 시기를 놓쳤을 때 오는 대량 피해를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외래 병해충 및 잡초, 새롭게 문제가 되는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정밀예찰을 위한 관찰포를 대폭 증·신설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도원에 병해충 담당사를 고정 배치하여 전문성을 배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도 주어서 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간 이동성 병해충의 정보체계 및 공동대응책을 구축하고 공중포충망 추가 설치로 비래지역을 신속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병해충 예찰업무를 국가 법적 사무로 의무화시킨다면 그 기능이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약화된 예찰기능의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예찰 정보에 따른 적기 방제가 안전우수 농산물 생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Y

